

주요개념 : 파시(R. R. Parse)와 왓슨(J. Watson)의 간호이론에서의 실존적 현상학

파시(R. R. Parse)와 왓슨(J. Watson)의 간호이론에서의 실존적 현상학

공 병 혜*

I. 서 론

본 논문은 간호학을 인간 과학(human science)이란 패러다임 내에서 간호이론과 방법론을 정립시킨 파시(Parse)와 왓슨(Watson)의 간호에 대한 철학적 토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파시는 인간-삶-건강이라는 간호이론의 주요개념들을 실존적 현상학(existential-phenomenology)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왓슨 역시 상호 교호적 작용으로서의 돌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은 실존적 현상학적 방법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두 간호학자는 기존의 실증주의와 과학주의라는 간호학문의 전통에 근거한 양적인 탐구방법론에서 벗어나, 인간과학의 패러다임 내에서 간호학문의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은 인간과학으로서의 간호이론의 모델을 제시한 로저스(Martha E. Rogers)의 이론에 뒤이어, 고유한 간호학적 지식체를 탐구하기 위한 질적 탐구 방법론으로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간과 삶 건강, 간호 현상에 대한 고유한 간호학적 지식체를 발견하기 위한 이들의 탐구 방법은 오늘날 간호학문에서 질적인 실존적 현상학적 탐구방법론이라고 불리우고 있다(최남희, 1991; 이은주·박영숙, 1993).

이 두 간호학자는 간호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규정과 관계하여 간호가 요구되는 인간과 삶의 총체적 환경, 이러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건강 불건강에 대한 개념 규정을 바로 실존적 현상학의 토대 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을 구체적인 실존적 주체자로서 이해한다. 거기서 건강은 주체와 타자사이의 상호 주관적 관계 속에서 주체의 실존적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간호의 의미가 부여된다. 여기서 이들의 간호학적 지식체를 탐구하기 위한 영역은 인간의 삶의 상호주체

적 관계 속에서 획득되는 주체의 현상적 영역(phenomenal field)이다. 이 영역은 논리적 분석이 가능한 명시적 인식의 영역 뿐 아니라, 암묵적인 인식의 영역인 지각과 감정의 심층영역, 영적 차원까지를 포괄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현상학적 방법론은 이러한 삶의 총체적 체험의 세계에 대한 현상적 영역을 기술 분석하거나, 혹은 예술적 표현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주체로서의 인간 삶과 건강, 간호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 삶의 실존적 의미발견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는 파시와 왓슨의 간호이론의 구성과 방법론은 바로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퐁티 등에 의해서 전개된 실존적 현상학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간 학문이란 패러다임 내에서 전개된 파시와 왓슨의 간호이론을 살펴보고, 그 이론의 구성요소들과 주요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실존적 현상학을 통해서 해명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 두 간호학자에게 영향을 준 하이데거, 사르트르, 그리고 메를로-퐁티의 실존적 현상학의 내용과 주요개념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간호이론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다음에서 전개될 논문의 주요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파시의 인간-삶-건강이란 간호이론의 틀 속에서 기본적인 전제들과 주요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왓슨의 돌봄 이론의 기본적 전제들과 주요개념들, 그리고 이에 따른 방법론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3. 하이데거의 존재철학에서 전개된 인간 현존재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과 실존해명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4.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에서 전개된 실존적 주체성과 자유와 타자, 그리고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본다.
5.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서 전개된 신체를 매개한 지각의 현상학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여 본다.

* 고려대학교 강사

6. 마지막으로 이들 실존적 철학자들의 주요이념과 개념들이 간호이론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평가하여 본다.

II. 파시의 간호이론

파시는 인간 과학에 기초한 인간 삶 건강(Human-Living-Health)에 대한 이론을 간호학의 원리에 대한 대안적 틀로서 제안한다. 이러한 파시의 간호학을 위한 패러다임은 인간학문에 기초한 로저스의 간호이론에 속하는 개념들과 실존 현상학자인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르-퐁티, 마르셀의 실존적 현상학의 주요이념들을 통합시킨 것이다.(Parse, 1981)

파시에게서 인간 과학은 인간 현존재(Dasein)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기 참여적인 삶의 체험을 탐구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파시의 인간과학 내에서의 간호이론의 구성은 로저스의 삶의 패턴의 나선형적이며 통합적인 유형(pattern)과 조직화의 원리, 그리고 실존적 현상학에서의 인간 실존의 주체성과 자유와 선택의 원리 등을 기초로 삼고 있다.

로저스는 인간에 대한 통합의 원리에서 인간 존재와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지속적이며 변화하는 통합적인 에너지 장으로서 서술한다. 인간과 에너지 장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변하는 삶의 주기와 곡선을 형성하며, 이러한 삶의 패턴은 공시성(Resonancy)이라고 칭해진다. 이러한 인간과 에너지 장은 끊임없는 에너지 교환을 하면서 삶의 유형으로 통합되며, 이것은 나선형의 방향으로 개방적으로 진행되어 새로운 유형을 향해 나아가지만, 과거의 유형으로 돌아가지도 반복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로저스의 통합된 인간이란 사차원적인 에너지 장을 지니며, 삶의 율동적인 패턴과 조직화에 의해 인지되며, 개방적으로 변화하며, 불가역적이다. 이러한 로저스의 인간학문에 대한 이론은 파시에 있어서 오로지 실존적 현상학과 결합하여 인간 삶 건강의 이론에 대한 가정으로 성립될 수 있다(Bunting, 1993).

파시는 인간학문에 기초한 간호이론에서 실존적 현상학에서의 주요 이념과 개념, 특히 주체성(subjectivity), 지향성(intentionality), 공존(coexistence), 상황에 참여적인 자유(situated freedom)을 로저스의 인간 학문에 대한 원리와 결합시킨다.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원리는 환경과의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의식적인 개인(Person)과 관계하며, 인간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닌다. 여기서 지향성의 원리는 한 개인이 세계에 대해 지향적으로 열려져 있음을 의미한다.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지향적으로 세계와

얽혀있고 세계 앞에 현전한다. 상황에 참여적인 자유(situated freedom)는 자아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선택과 동시에, 상황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존적 현상학에서의 인간의 현존재의 상황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원리는 파시에 의해 종합되었고, 그녀의 이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존(Coexistence)이란 지각을 통해 타자와 공존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움을 의미한다. 共構成(coconstitution)은 인간에 의해 상황이 구성되며, 상황의 모든 요소와 함께 현실(Reality)을 창조하는 것이다. 타자와 관계하는 세계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개인은 타자와 함께 상황과 세계에 대한 창조에 공동으로 참가한다. 이러한 파시의 실존적 현상학의 지향성, 인간 주체성, 구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Heidegger, 1984)에 기초하고 있으며, 타자와 상호 주관적 관계 속에서 공존하는 “세계 내 존재”는 메를르-퐁티의 『지각의 현상학』(Meuleau-Ponty, 1974), 상황에 따른 자유와 선택의 개념은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Satre, 1966)에 기초하고 있다.

파시의 이론에서 인간은 로저스처럼 통합된 에너지 장으로서 간주되기보다는 건강을 함께 창조하는 열린 실존적 주체이다. 인간은 환경에 참여하여 환경을 형성하고, 상황에서 의미를 자유롭게 선택 결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파시에게서 건강의 의미는 환경에 대한 적응 혹은 모사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삶의 의미에 대한 창조, 혹은 구성에 있다.

1. “인간-삶-건강”에 대한 가정과 원리, 그리고 개념들

파시는 로저스(Martha E.Rosers)의 인간학문에 대한 원리와 특히 실존적 현상학의 근본적 이념과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인간-삶-건강”이라는 간호이론에서 인간 현존재와 건강에 대한 가정들과 원리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정 1 : 인간은 환경과의 율동적인 유형들을 함께 구성(coconstituting)하며 공존한다(Parse, 1981).

가정 2 : 인간은 개방된 존재이며 상황 속에서 의미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결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간은 환경과 개방적으로 에너지 교환을 하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방식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Parse, 1981).

가정 3 : 인간은 관계에 대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구성하는 체험하는 삶의 통합체이다. 여기서 개인은 세계에서 타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의미를 창조한다. 이러

한 관계 속에서 구성된 패턴은 고유한 인간의 존재방식이다. 이러한 패턴은 “제스처, 움직임, 말하기, 접촉, 응시, 태도”를 통해서 해명된다(Parse, 1981).

가정 4 : 인간은 가능성을 가지고 다차원적으로 초월한다. 인간에 의해 동시적으로 경험된 우주의 수많은 차원이 있다. 특히 파시는 인간의 가능성을 “명시적-암묵적 지식”과 관련시킨다. 인간은 가능성에로의 초월이라는 선택을 모두 명시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미를 암묵적 차원인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감각(지각)”으로부터 구성한다.(Parse, 1987) 인간 현존재는 현재의 현실을 초월하여 움직이며 현재의 제한성을 초월하는 그 어떤 것으로 되어간다. 새로운 가능성의 차원으로 향하는 선택은 논리적이며 연역적 반성을 포함하는 상황에 대한 “전반성적인 이해”라는 차원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로부터 지식의 많은 유형들이 결정된다. 이러한 전제는 사차원성, 상황에 놓인 자유, 개방성이라는 개념들을 통합한다. 시간과 공간은 상호 결합하는 인간과 환경의 나선형 적 패턴의 율동적 흐름의 통합체이다(Parse, 1981).

가정 5 : 건강은 인간에 의해 경험된, 인간 되어감(becoming)의 개방된 과정이다. 이러한 건강의 과정은 지속적인 환경과의 에너지 교환을 통해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방향을 지닌다.

가정 6 : 건강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율동적으로 같이 구성하는(coconstituting) 과정이다. 삶의 과정으로서의 건강은 환경과 인간사이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의 변화과정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건강의 과정은 환경과의 “동시적인 결합과 분리를 통한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이다”(Parse, 1981).

가정 7 : 건강은 가치의 우선에 대한 인간 삶의 패턴(pattern)이다. 이러한 가정은 건강이 인간에 의해 선택되고 성장된 특수한 이념에 의한 개별적 삶의 방식임을 의미한다. 개별자의 삶의 유형에 대한 선택은 평가된 가치의 표현이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존재 방식이다(Parse, 1981).

가정 8 : 건강은 가능성을 가지고 초월하는 상호 주관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건강이 개인의 특수한 이념에 의해 선택된 개인의 고유한 삶의 가치를 표현하는 삶의 방식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의 존재

방식은 개인의 건강을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현실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지닌 상호 주관적인 과정인 것이다(Parse, 1981).

가정 9 : 건강은 인간의 전개, 해명(Unfolding)의 과정이다(Parse, 1981; Parse, 1992). 건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개방된 에너지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되어감의 과정인 것이다. 건강은 상호의존적인 타자와의 공존 속에서 더욱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의 과정이다(Parse, 1981).

위에서 전개된 인간과 건강에 대한 9개의 가정들은 로저스, 하이데거, 사르트르, 멜르르-퐁티, 의 원리와 개념들로부터 종합되었음을 파시는 밝히고 있다(Parse, 1981).

파시는 이러한 9개의 가정을 1987년 자신의 저서 “Man-Living-Health”에서 3개의 가정으로 통합시킨다.

1. 인간되어감(Human becoming)으로서의 건강은 가치 우선과 관계하는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인간존재의 가치를 선택하여 반영하는 삶의 의미를 창조한다. 파시에 있어서의 건강은 개인의 삶의 “의미”의 선택으로서 삶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건강은 “개방적인 환경과의 상호교류 속에서 역동적인 삶의 유형을 창조하는 것이다”.
3. 인간 되어감으로서 건강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현실을 초월하여 다양한 차원으로 전개하는 가능성이다. 여기서 함께 초월한다는 것은(cotranscending)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며, 다차원적이란 의미는 동시적으로 경험되는 우주의 다양한 차원과 관계한다. 초월을 향한 움직임은 직선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건강은 그들이 삶의 의미를 선택하고, 체험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가능성을 향한 운동이며 표현이다(Parse, 1987).

그러면 이러한 파시의 “인간- 삶- 건강”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는 가정들은 어떠한 주요 개념들과 원리를 지니고 있는가? 여기서 파시는 3개의 주요원리와 이에 따른 9개의 주요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원리 1 : “다양한 차원으로 의미를 구조화하는 것은 상상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언어화를 통하여 현실성(reality)을 함께 창조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1)

상상하기(imaging), 2) 평가하기(valuing) 3) 언어
화하기(languaging)라는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 1) 상상하기(imaging)는 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조화하여 현실성을 창조하는 것이다. 현실성은 인간의 동시적인 반성적-전반성적(pre-reflective)인 상상하기를 통하여 구성된다. 반성적, 전 반성적 상상하기는 현실의 창조를 명시적이며 동시에 암묵적으로 창조하는 인격적 지식의 형태이다(Polanyi, 1969). 명시적이며 암묵적 지식은 동시적이며 상호적으로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과정에 참여한다. 실제성을 상상한다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명시적, 암묵적인 지식의 동시성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 삶 - 건강의 기본적인 형상인 것이다.
- 2) 평가하기(valuing)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교류로부터 출현한다. 이것은 자신의 신념을 확인시키는 과정이며,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반성적 작업이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은 상상된 것에 대한 선택으로서 자신의 삶의 가치체계 속으로 통합된다.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은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차원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평가의 과정은 다양한 차원의 경험으로부터 선택되어 평가된 이미지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 3) 언어화하기(Languaging)는 평가되어 선택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다양한 차원의 경험으로부터 고유한 의미가 부여되어 선택되고 평가된 이미지가 언어화를 통하여 상징화된 것이다. 언어화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출현하며, 특별히 문화적 전통과 관계한다. 상상된 가치를 언어화하는 것은 의미를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 - 삶 - 건강의 형태를 재인식하게 한다(Parse, 1981).

원리 2 :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율동적인 유형(pattern)을 창조하는 것은 삶의 과정의 결합과 분리의 과정에서 드러냄과 감춤, 가능성과 제한성이라는 역설적인 통합체이다. 율동적인 관계의 패턴을 창조하는 것은 세계와 공존하는 존재의 구성방식에 대한 음률이다. 삶의 율동적인 패턴은 짧은, 긴, 혹은 높은, 낮은 주기성과 곡선을 지니며, 이 패턴을 통해서 인간과 환경은 반성된다. 이 원리에서 인간 삶 건강(Man-Living- Health)이라는 리듬은 특별한 개념들, 즉 드러냄-감춤, 가능한 것-제한하는 것, 그리고 결합-분리라는 개념을 내포한다.

- 1) 드러내는 것-감추는 것(Revealing-Concealing) : 드러내는 것-감추는 것은 자아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이 벗겨짐과 동시에 다른 몇 가지 관점은 숨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리듬은 인간상호관계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이념이다.
- 2) 가능하게 하는 것과 제한하는 것(enabling-Limiting) : 가능하게 하는 것-제한하는 것은 인간 삶 건강의 또 다른 율동적인 유형이다. 이것은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가능한 것과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상황 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면, 자아의 운동은 한 방향으로 가능하지만, 다른 방향으로로는 제한된다. 인간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 모든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지니지만, 동시에 모든 가능성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 적이며 동시에 제한적이다.
- 3) 결합-분리(connecting-separating) : 결합-분리는 인간이 한 현상과 결합하면, 동시에 다른 현상과는 분리됨을 의미한다. 결합과 분리는 일종의 사건이며, 각 각의 분리는 결합의 더 높은 질서로 이끌며, 이러한 과정은 인간발전의 중요한 믿음이다. 매일의 삶에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어떤 현상에 가까이 다가가고 동시에 다른 현상과는 멀어진다. 이러한 결합과 분리가 바로 율동적인 삶의 유형을 창조해 낸다(Parse, 1981).

원리 3 : 가능성을 가지고 함께 초월하는 것(cotranscending)은 변형(Transforming)의 과정 속에서의 새롭게 발생(originating)하는 고유한 방식의 힘(powering)이다. 이 원리는 타자와 함께 삶의 패턴을 구성하여 삶을 변형시키는 근원적인 힘의 원리이다. 인간은 타자와 함께 실존하는 관계형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창조한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방식을 선택하며 상황을 구성하며, 동시에 그러한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차원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상황이라는 제한성 내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의 가능성을 향한 힘을 지닌다.

- 1) 힘(powering) : 주어진 상황을 초월하는 힘(Powering)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다. 이러한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초월하는 것은(cotranscending)은 변형으로 향한 발생의 힘이다. 이러한 창조와 변형의 힘은 인간과 환경에너지의 교류의 과정에서 생성된다. 존재는 끊임없이 비존재와 대면한다. 비존재는 그 스스로 매일의 삶에서 자아상실이라는 위험, 두려움 거절

등을 통해 드러나며, 이에 대해 자기 확신을 부여하는 존재의 생성의 힘은 창조와 변형의 힘이다. 힘은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는 인간의 의도와 행위를 구체화시키는 지속적인 율동적 과정이다(Dilthey, 1961). 또한 밀고 저항하는 것(pushing-resisting)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창조를 위한 힘의 리듬이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개별자와 그룹 사이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발생한다.

- 2) 발생(originating) : 발생은 인간과 환경과의 에너지 교류 과정에서 출현하는 지속적인 전개과정이다. 이것은 삶의 고유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일어난다. 새로운 삶의 창조는 매일 매일 인간이 만나는 삶의 모순, 즉 안정성과 불안전성,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의 모순을 초월하여 변형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인간의 새로운 창조의 유형은 오로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출현한다.
- 3) 변형(transforming) : 변형은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함(changing)이다. 이러한 변형은 새로운 세계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며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다. 인간의 지속적인 변형은 자기 독창적이며 창조적이다(Parse, 1961).

2. 간호와 관계하는 주요개념들

지금까지 인간과학에 뿌리를 둔 인간 되어감(Human becoming)의 과정으로서의 건강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는 원리들과 개념들을 해명해 보았다. 이러한 파시의 인간 - 삶 - 건강의 틀 내에서 이해되는 간호와 관계하는 주요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서비스를 받는 개인 혹은 그룹 2. 환경, 3. 건강, 4. 간호이다.

파시의 동시성 페러다임이라고 일컫는 간호이론의 틀 속에서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교류과정에 있는 개방적 존재이다. 인간은 부분의 합 이상이며, 환경과의 동시적인 끊임없는 에너지 교류와 변화의 과정에 있다. 건강은 인간에 의해 경험된 변화의 과정으로서, 인간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거기서 간호의 목적은 주체로서의 개인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둔 인간에 대한 서비스인 것이다.

건강은 파시의 이론에서 자신의 환경과 관계한 인간 되어감의 과정이며, 인간과 환경에 의해 동시적으로 함께 창조된다. 파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건강은 인간의 전개이며, 인간의 체험된 경험이며

좋은 것, 나쁜 것이라는 용어에 의해 특성 지을 수 없는 비직선적인 실체이다. 건강은 인간의 적응 혹은 모사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인간의 건강은 가치의 종합이며, 삶의 방법이다. 이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질병의 반대나,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이 함께 창조하는 변화의 과정이다(Parse, 1987).

그러면 파시의 이론에서 간호란 무엇인가? 파시의 이론에서 간호학문은 “환경과의 상호교류관계에 있는 인간의 건강에 대해 중점을 두고 탐구하는 학문이다” 간호실천은 간호의 지식을 체를 인간을 서비스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간호의 책임은 변화하는 건강과정 속에서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는 개인과 그들의 가족과의 상호 주관적인 참여를 통해서 일어난다. 간호의 목적은 개인과 가족에 의해 인지된 것으로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다(Parse, 1987).

간호실천의 차원은 1. 삶의 의미를 해명하고 2. 삶의 리듬을 동시화 하여, 초월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Mobilizing) 것들에 있다. 간호실천을 위한 과정은 1). 언어화를 통해 현재 출현하는 삶의 흐름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즉 이것은 곧 설명(explicating)이다. 2)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결합과 분리라는 투쟁의 흐름에 몰두하며 거주하고 3) 변형에로의 가능성을 향해서 추진하는 초월의 움직임이다(Parse, 1987).

파시에게서 진정한 인간은 상황에서 의미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방된 존재이다. 파시는 간호실천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판단을 우선시 하여야 하며, 간호사는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알리고 말하는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비스하기보다는 지지적인 역할 속에서 서비스해야 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건강에 대한 탐구자로서 스스로 자율적인 책임을 가진다. 개인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점과 판단이 간호실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Bunting, 1993).

III. 왓슨(J. Watson)의 간호이론

1. 간호이론의 전제

왓슨의 인간간호에 대한 이론은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실존적 이해와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녀에게서 인간 현존재는 초월적 본성(transcended nature)을 지니며, 정신활동에 의해 자기인식을 높여가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통합적이며 조

화로운 자아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이해된다. 여기서 그녀는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 영적(spirit)인 존재의 통합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엄한 경외(敬畏)한 신비로운 존재로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왓슨은 인간의 영혼(soul)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정신(Geist), 혼(Spirit)을 지닌 한 인격체의 본질로서의 내적인 자아와 관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혼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에 놓인 육체에 얽매인 일상적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 통합적 자아인식에 대한 감각, 높은 의식의 단계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들을 모두 포함한다(Watson, 1988).

따라서 왓슨은 인간을 영적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지닌 “세계 내 존재”로 정의하며, 인간의 자아실현의 과정은 삶의 실존적인 의미가 충족되어 가는 지속적인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존재는 자아를 끊임없이 초월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가 부여되며, 이것은 특히 간호라는 인간 돌봄의 과정에 대한 이론의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간호사와 다른 인격체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돌봄의 과정은 인격체 사이의 결속과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즉 인간의 신체, 정신과 영혼이 상호 교호적으로 체험되는 돌봄의 과정은 구체적인 시공간의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한 인간의 내적 세계에 대한 체험은 수면, 꿈, 환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내성, 창조적 상상, 명상, 자아에 대한 투사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체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여 점차 높은 수준의 영적인 세계에로의 초월의 과정이며, 돌봄의 과정은 이러한 지속적인 초월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Watson, 1988).

그러면 삶의 과정에서 왓슨의 건강과 불건강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불건강은 질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의 내적인 자아의 부조화,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 신체, 영혼의 통합체로서의 한 인격체 내에서 일어나는 부조화 현상이다. 불건강은 자아와 경험의 대상으로서 자아가 분리되는 상황, 즉 지각된 자아(주어, I)로부터 경험된 자아(목적어, me) 사이의 불일치가 한 인격체 내에서 지각되는 불 일치감이다. 분열된 내적인 영혼은 불건강과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즉 분열된 내적인 영혼에서 야기되는 내적인 고통, 죄책감, 자기 비난, 비통 상실 등은 불건강을 초래하고, 그 결과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역으로 질병이 내적 영혼의 부조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Watson, 1988).

건강은 정신, 신체 영혼 내에서 통합과 조화를 말하며, 지각되는(perceived) 자아와 경험된(experienced)된 자아사이의 일치 정도와 관련된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관점은 인간의 외

적 행위와 생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사회적, 감성적, 도덕적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전체적인 본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인간, 삶, 건강 불건강에 대한 왓슨의 기본적인 전체 하에서 간호의 목적이 설정된다. 간호의 목적은 한 개인에게 삶의 다양성을 허용하면서 자기인식, 자기 존중, 자기치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정신 신체 영혼의 더욱 더 높은 차원의 조화를 획득하게 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각 개인이 자아의 부조화현상 즉 고통 혼란 속에서 자기를 조절하여 건강과 불건강에 대한 선택기준을 가지고 자기결정을 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위에서 서술된 인간과 삶, 건강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근거로 한 왓슨의 간호학문의 기본적 전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간호는 물리적이며, 절차적이며, 객관적이며, 사실적일 수 있지만, 간호의 최고의 수준에서의 인간간호는 반응(responses), 상호교호작용(transaction)이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간호사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물리적 세계를 초월하여 내적 자아에 대한 고도의 감각에 이르는 인격체의 정서적 주관적 세계와 접촉한다.
2. 인간의 신체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지만, 마음(mind)과 영혼(soul)은 물리적인 세계에 제한되지 않는다. 인간의 높은 정신과 영혼에 대한 감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집단적인 무의식, 인과적 과거, 신비스러운 경험, 초심리학, 고도의 능력과 같은 것을 이해하도록 하며, 인간존재의 영적인 발전을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다(이것은 샤르댕, 키엘케골, 헤겔, 마르셀 등을 포함한 수많은 철학자에 의한 제안되었다).
3. 간호사는 마음, 신체 혹은 영혼이란 인간의 한 측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간의 마음, 감정, 내적인 자아에 접근할 수 있다. 간호사는 인간의 신체가 정신, 감정, 자아에 대한 고도의 감각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4. 인간의 영적인 본질은 자유의 가능성과 관련하며, 자기전개의 과정에 있으며, 이것은 또한 타자의 존재 가능성에 의해 제한 받는다. 한 인간의 운명은 자아의 영적 본질의 개발에 있지만, 각각의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본질과 도덕적 행위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5. 인간은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돌봄과 사랑은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신비스러운 정신적인 힘이다”(De Chardin, 1967).
6.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건강을 지닐 수 있으며,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 어떤 주어진 순간에서 포착되는 경험의 총체성은 현상학적 영역을 구성한다. 이것은 개인의 의미의 틀이며, 주관의 내적인 관계, 지각되고 체험된 것으로서의 대상, 주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포함한다(Watson, 1988).

위에서 서술된 인간과 삶, 건강에 대한 기본적 전제를 지닌 간호학문은 인간과학이다. 즉 간호학문은 과학적, 인격적, 감성적, 윤리적인 지식을 통하여 인간 돌봄의 상호작용을 중개하는 인간의 건강, 불건강의 경험에 대한 과학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현상, 언어의 내적 성찰, 사례탐구, 철학적, 역사적 탐구를 통해 인간의 경험에 대한 면밀하고 포괄적인 고찰을 포함한다. 이러한 간호학문은 인간의 건강, 불건강을 체험하는 세계, 즉 생활세계와 그 속에서의 상호 교호적인 인간 돌봄 현상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 질적인 이론과 연구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2. 간호이론의 구성요소와 정의들

왓슨에게 있어서 간호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는 역동적이며, 변화하는 개념이다. 간호는 지식, 사고, 가치, 철학, 의무, 행동, 정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간 돌봄의 상호 교호적 작용은 생활 세계에서의 상호 주관적인 인간접촉과 관련되어있다. 이러한 인간 돌봄은 간호의 도덕적 이상이다. 간호의 도덕적 이상이란 인간에게 질병(불건강), 고통, 통증이라는 인간의 현존재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줌으로서 상호 교호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성의 보호, 증진, 보존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내부의 통합된 자아의 조화의 감각을 회복시키면서, 자기인식, 자기통제, 자기치유에 대한 감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Watson, 1988).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왓슨의 인간 돌봄의 과정으로서의 간호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 개인(Person), 건강, 불건강, 초인격적 간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규명해 보자 한다.

1) 인간

세계 내 존재(a being- in- the world)로서의 인간은 마음, 신체, 영혼의 세 가지 측면을 소유한다. 인간의 자아는 신체, 사고, 지각, 욕망, 기억, 삶의 역사 등이 통합된 전체를 지닌다. 인간은 물질에 속하지만, 이러한 물질세계와의 변화, 혹은 통제, 조화를 이루면서 물리적 자연세계를 초월할 수 있다. 인간

에게서 자아의 형성은 새로운 경험이 끊임없이 변형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자아(self)에 대한 가장 고차원적인 느낌은 영적인 자아, 즉 의식의 잠재적 형태를 지닌 자아의 본질에 대한 느낌을 의미한다(Watson, 1988).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의 총체적 경험은 현상적 장(a phenomenal field)을 구성한다. 이러한 현상적 세계는 그 개인의 의미의 틀(frame of reference)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실재성이 아니라, 바로 주관적인 실재성을 지닌다. 인간은 이러한 현상적 세계에 의존하여 지각하고 주어진 상황에 응답한다. 이러한 현상적 영역은 의식적인 영역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라 잠재적 영역까지도 포괄한다. 거기서 자아와 타자에 대한 지각은 느낌, 생각, 신체적 감각, 영적인 믿음, 소망, 목표, 기대 등을 통해 합치되며, 이것은 자신의 삶의 역사와 상상된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Watson, 1988).

2) 조화와 부조화

마음 신체 영혼, 혹은 인간과 세계 사이에서 부조화가 있는 곳에서 지각된 자아와 자아의 실제적 경험 사이의 분리가 생긴다. 즉 자아와 경험의 대상으로서의 자아 사이, 인격체와 세계 사이의 불일치를 느낀다. 지각된 총체적 자아와 개인의 경험간의 불일치는 마음, 신체, 영혼 내의 부조화가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위협, 불안, 내적 동요를 야기 시키며, 존재에 대한 실망감, 두려움은 불 건강을 야기 시킨다. 또한 거기서 주관적 실제(현상적 영역)와 외부적 실제세계간의 일치 혹은 불일치가 발생한다.(Watson, 1988)

3) 추구

개인은 하나의 기본적인 추구를 하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자아를 실현시켜서 자아의 영적인 본질을 발견, 개발시키는 데에 있다. 즉 각각의 인격체는 영적 본질을 개발하여 마음, 신체, 영혼 내에서의 조화의 감각을 추구하고 통합시켜서 결국 실제적 자아를 실현하고자 한다. 자신의 실제적 자아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 신체, 영혼 내의 조화의 정도에 따라 더 차원 높은 건강이 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은 어떻게 부조화가 생겼으며, 어떻게 경험적 자아와 실제자아의 일치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마음, 신체 영혼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 돌봄, 그리고 이해되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지닌다. 이것은 한 개인적 삶을 초월하여 타자와 화합에 이르고 삶의 조화를 발견하려는 욕구인 것이다(Watson, 1988).

따라서 간호사의 돌봄이라는 상호 교호적 활동(transaction)은 한 개인의 영적인 개발이나 실제적 자아의 발견에 영향을 주며, 간호사 환자 모두를 위한 자기인식, 자기 존엄, 자기 조절, 자기치유에 영향을 미친다.

초개인적(transpersonal)인 간호는 과학적, 전문적, 윤리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감성적, 창조적인 경험의 주체와의 인격적 접촉을 통한 상호 교호적인 행위와 반응을 의미한다. 돌봄이란 교호적 작용은 상호 주관적인 세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접촉을 넘어서 더 높은 자아의 영적 차원에 도달하거나 접촉하기 위한 잠재력을 지닌다. 이러한 인간의 초개인적 돌봄은 인격체 상호간의 내적인 움직임을 통해 마음 신체 영혼 내의 내적인 조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자기치유과정을 생성하고 강화한다. 따라서 돌봄의 상호 교호적인 작용은 간호사와 간호대상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존재의미의 생성 과정이며, 각각의 주관적인 현상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삶의 일부분이 된다(Watson, 1988).

결국 왓슨에 있어서 돌봄은 간호사와 대상자의 주관적인 현상적 영역 사이가 서로 접촉하여 두 인격체의 삶이 서로 만나는 사건을 지닌다. 이 경우 두 인격체는 서로 상호 주관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적 영역에서 자율적 행위와 선택의 기회를 지닌다. 두 인격체가 상호 주관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의식을 확장하게 하고 영적 차원에서의 고양어 일어난다. 여기서 간호에 있어서 초개인적인 관계는 간호사가 타자에게 영향을 주고 타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인간 사이의 상호 주관적인 관계형성을 의미한다. 양자는 완전히 순간에 출현하고 서로의 결속을 느낀다. 그들은 각자의 삶의 역사의 부분으로 되어 가는 현상적 영역을 서로 공유하며, 현재와 미래 속에서 함께 참여한다. 간호의 이상은 이러한 상호주관성의 이념을 포함하는 것이다(Watson, 1988).

실제적인 돌봄의 사건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며,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잠재력이 된다. 이러한 돌봄이라는 일종의 사건은 주관적으로 체험된 삶의 실재성 그리고 양자의 삶의 역사가 되어간다.

3. 초개인적 간호의 관계형성과 예술

왓슨의 인간 돌봄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초개인적 간호관계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지닌다.

1.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도덕적 실천은 한 개인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2. 간호사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를 확인하려는 의도와

의지를 지녀야 한다.

3. 타자의 감정과 내적인 상태를 현실화하고, 정확하게 탐색하는 간호사의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은 행위, 언어, 인지, 신체 언어, 감정, 사고, 감각, 직관 등을 통해 발휘된다.
4. “세계 내 존재”로서의 타자의 조건을 사정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타자와의 결속을 느끼는 능력, 즉 간호사는 움직임, 제스처, 표정, 행위, 처치, 정보, 감촉, 소리, 언어, 색, 형태 등의 감성적인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환자와의 상호주관성은 간호의 도덕적 근거가 된다.
5. 간호사는 자신의 고유한 역사로서의 인과적 과거, 현재의 경험, 다양한 인간조건 하에서 타자에 대한 감정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닌다(Watson, 1988).

왓슨은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의 성립되는 인간상호간의 초개인적 돌봄을 예술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예술로서의 행위는 한 개인이 듣거나 보거나 혹은 직관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간호에서의 예술행위는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상호 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 감정을 수용하고 표현하여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정서의 공유에 기초한다. 여기서 돌봄으로서 예술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초개인적 관계 속에 참여시켜 인간 감정을 전달하고 드러나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돌봄의 과정에서 일깨워지는 감정은 사랑, 공포, 용기 기쁨, 고통, 놀라움 등등이며, 이러한 감정을 행위, 접촉, 소리, 언어, 색깔, 형태라는 수단을 통해 전달할 때, 간호는 예술이 되는 것이다.

왓슨에게서 간호의 궁극적 목적은 몸, 마음, 영혼의 조화로운 상태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기서 예술로서의 돌봄은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의 상호 주관적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 증진하기 위해 인간성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술로서의 초인격적인 간호의 과정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 마음 신체 영혼의 조화에 대해서 위대한 위치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Watson, 1988).

4. 간호학의 방법론

상호 주관적인 초개인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행위로서 돌봄의 과정에 대한 왓슨의 간호이론은 결국 인간 현존재에 대한 이해, 건강과 불건강, 인간의 치유능력 등에 대한 의

미를 해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왓슨이 소개하는 방법론은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론(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ology)과 초월적(transcendental) 혹은 심층적 현상학(Depth phenomenology)이다.(Watson, 1988)

1) 서술적 현상학적 방법론(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왓슨은 초인격적 간호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훗슬의 현상학적 이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론(Giorgi, 1970; Alexandersson, 1981; Marton, 1981)과 메를로-퐁티, 하이데거로부터 철학적 기초를 지니는 초월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인간학문으로서의 간호학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술적 현상학적 탐구를 위해서 왓슨은 Alexandersson의 기술적 경험적 현상학적 방법론에 따라 1981-82년 사이에 있었던 Australia에서의 상실 경험의 연구를 위한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다. 거기서 연구프로토콜을 실행하기 위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자연적인 서술을 얻는다. (고정된 현상의 구조에 다다르기 위해 경험을 괄호에 넣고(판단 중지)를 상상적인 변경을 시도한다). 대상자의 경험은 조사자가 아닌, 대상자의 입장에서 서술되어야 한다.
2. 연구자는 경험 그 자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서술적 환원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본질을 추론한다.
3. 탐구자는 주관적 변용(Variation)으로부터 획득된 객관적인 서술을 발견하는데 목적을 둔다(Watson, 1988).

위와 같은 기술적 현상학적 접근법에 의한 연구프로토콜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선 탐구자는 대상자에게 주제를 질문하여, 돌봄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그 다음 획득된 서술은 각 각의 예에서 사실과 돌봄의 구조를 획득하기 위해서 분석되어야 한다. 모든 분석의 목적은 각 각의 예에서 상실(Los)에 대한 경험과 돌봄의 의미에 도달하기 위한 구조를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법에 의한 상실과 돌봄의 현상에 대한 의미획득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 의한 기술과 분석을 통해서 완수될 수 있다.

1. 간호대상자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얻기 위해 프로토콜을 철저히 읽는다.
2. 프로토콜을 대상자가 표현한 대로 의미단위 혹은 구성요

소로 나누고, 의미가 변화되는 곳에 표시를 한다.

3. 각 각의 의미단위를 심리적-간호-인간 돌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
4. 경험을 특징짓기 위해 의미단위로 환원시킨다(이러한 진술들이 상황의 본질을 포착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각 자에 대한 자유연상변이를 실시한다)
5. 진술들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시키며, 이 진술을 다른 상황에서 추론된 구조와 비교될 수 있는 방식을 지닌 학습 경험의 구조로 구현된 통합된 전체어로 종합시킨다(Watson, 1988).

왓슨은 위에서 보여준 Alexandersson의 작업에 따른 상실의 경험에 대한 프로토콜과 이에 대한 현상학적 방법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초개인적 간호의 이론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심각한 상실에 대한 인간의 경험은 “세계 내 존재”로서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상실은 지각된 자아와 경험된 자아사이의 불화를 초래한다. 이것은 세계 내 존재(being in the world)의 3영역, 즉 마음(감정), 신체, 영혼 사이의 불화이다. 이러한 불화는 깊은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자아감각과 현상적 영역을 변화시킨다. 자아감각은 완전히 변화되고 혼란한 상태에 있다. 마음, 정서는 슬픔과 고통의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초개인적인 간호의 상호교호작용을 통하여 간호사는 적극적으로 상실을 느끼는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즉 포용하고, 붙잡고, 슬픔을 나눔으로써 상호 주관적인 관계 속으로 진입한다. 거기에는 한 개인과 함께 나누는 시간과 동시에, 개인은 내적인 자아의 활동을 위해 홀로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간호사는 초개인적 간호를 통해서 그들이 내적인 공포, 슬픔 상실감을 발견하고 경험하도록 하며, 사적인 시간을 허용함으로써 집단의 슬픔을 표현하도록 한다.

돌봄의 과정은 그녀 스스로를, 혹은 다른 타인을 상실감이 소모되는 과정(time out process)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느낌을 체험하도록 허용한다. 그녀는 그들의 뒷전에서 반성하면서, 그들 스스로 자신의 현상적 장(phenomenal field)과 과거적 삶을 일치시키면서 상실감이 완화되도록 한다. 간호사는 경험에 대한 주관적이며 인격적인 지식을 획득하여서 그들의 체험이 의미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사는 그들의 고유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들의 인격적 세계의 의미를 탐구하며, 그들 스스로 경험, 감정과 지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아의 변화와 발전의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상실에 대한 실제적인 돌봄의 기회로부터 일어나는 간호사의 상호 교호적인 돌봄의 과정은 각 개인의 삶의 역사와 삶의 형식으로 되어가도록 한다. 간호사가 대상자와 접촉하여 슬피하는 사람의 상처받은 영혼, 영적인 감각을 어루만질 때, 아주 심각한 상실을 경험하는 개인의 분열된 영혼은 돌봄의 요구를 갖게 되는 것이다(Watson, 1988).

위에서 서술된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에 의한 인간의 건강 불건강에 대한 분석은 간호에서 인간 돌봄의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인간경험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간호연구를 위해서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보다 더욱 심오한 탐구 방법은 초월적 심층적 현상학적인 방법이다. 왓슨에 의하면 이것은 간호가 과학이며 동시에 인간행위에 의한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적합한 탐구방법이 될 수 있다.

2) 초월적, 심층 현상학과 이것에 대한 시적인 결과

간호연구를 위한 더욱 적합한 방법은 왓슨에 의하면 초월적 혹은 심층적 현상학(transcendental or depth phenomenology)이다. 이 방법은 경험에 대한 서술적 언어를 통한 기술적 분석적 방법이 아니라, 시적인, 예술적 표현이라는 초월적 방법에 의해 건강과 불건강과 관련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 기초는 메를로- 폰티와 후기의 하이데거의 철학과 관련한다. 왓슨은 초월적 현상학이 초개인적 돌봄의 과정과 과학과 예술로서의 간호를 탐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거의 완전한 방법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메를로-폰티, 레빈(Levin)의 초월적 현상학의 방법에 따르면 인간 삶의 심층적 초월적 체험과 이에 대한 창조적인 개방적 이해의 과정은 시적인 표현이라는 결과를 낳는다(Merleau-Ponty, 1962; Levin, 216-234). 반면에 그들은 현상으로서의 삶의 체험에 대한 순수한 기술과 분석으로서의 기술적 현상학을 오히려 합리주의 혹은 논리실증주의의 페러다임에 놓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학이며 동시에 예술로서의 간호의 과정을 현상학적 방법론에 적용시킨다면, 이 방법론은 인간존재의 심층적 체험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시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초월적(발생학적) 현상학은 경험의 심층적인 측면과 인간 본성의 개방성, 인간존재에 대한 잠재력과 관련한다. 이 방법론은 경험에 대한 반성, 의미가 출현하는 과정, 통찰, 그리고 언어를 반성하여 역동적인 운동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험에 대한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의 결과는 시적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과학을 예술과 결합시킨다. 즉 심층 현상학에서 인간의 체험을 서술하기 위한 언어는 일상적 경험의

심층에 내재된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심오한 의미를 깨닫는 표현방식이어야 한다(Watson, 1988).

심층적 현상학은 순수한 기술을 넘어서 시적 언어를 통해서 느끼고 표현된 초월적 경험을 허락한다. 여기서 탐구자는 진리 대응설이 아니라, 알레테이아(aletheia) 이론, 즉 알려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는 이론을 수용한다. 인간 과학이며 예술로서의 인간 돌봄은 참된 감정과 경험의 깊이, 그리고 시적 표현을 낳는 초월적인 과정을 지녀야 한다. 결국 초월적 현상학에서 간호사는 실천과 혹은 연구에서 우선 자신 스스로 초월적 존재로서 타자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참여와 이에 대한 자기표현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항상 경험에 대한 근원적인 것에 대한 신뢰와 접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왓슨이 보여준 간호에 있어서의 초월적 현상학적 방법은 여기와 현재를 초월한 인간의 심층에 대한 감동적 체험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며, 이것의 결과는 시적 표현이다.

IV. 파시와 왓슨의 간호이론의 주요개념에 대한 철학적 배경

1. 하이데거(1889~1979); 인간 현존재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을 통한 실존해명, 언어와 진리

하이데거의 존재철학의 과제는 인간 존재의 해명에 있다. 이때 존재의 해명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인간자신의 이해라는 밝힘(Lichtung), 사건(Ereignis)으로 이해된다(Zimmermann, 1977).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존재자, 즉 인간이란 존재자를 하이데거는 특히 현존재(Dasein)이란 용어를 붙인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자라는 뜻이다. 이러한 현존재는 항상 거기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묻고 이해하는 가능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주저인 “존재와 시간”에서 전개하고 있는 인간존재의 해명을 위한 현상학적 방법은 인간 현존재에 대한 분석과 기술을 통해 감추어져 있는 인간현존재의 존재를 밝히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인간 현존재의 이해를 위한 현상학이 되는 것이다(Biemel, 1993).

인간이라는 존재자는 다른 존재자와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존재방식에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이러한 존재를 하이데거는 실존(existenz)이라고 부른다. 즉 거기(da)에 있는 자신에 대한 존재이해를 지닌 현존재의 특징이 실존이며, 따라서 현존재에 대한 분석을 실존적 분석이라고 칭한다(한진숙, 차인석, 1988).

하이데거는 일상세계에서의 인간현존재를 “세계 내 존재”(In-der-Welt-Sein)라고 규정한다. 인간이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은 인간은 항상 이미 주위세계와 관계 맺고 교류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존재방식을 배려(Besorgen)이라고 한다. 즉 인간은 주위세계를 둘러보며 관심을 쏟으며 배려하는 방식으로 만날 때, 도구를 만난다. 즉 길가에 있는 돌은 우리의 현존재와 아무런 연관관계를 맺지 않을 때 사물이지만, 현존재와의 배려관계, 교섭하는 존재일 때, 도구가 된다. 이러한 도구 연관관계를 맺고있는 외부세계의 전체가 바로 환경(Umwelt)이다. 그런데 이 세계에는 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현존재, 즉 타인이 있다. 우리는 이 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면서 공동의 세계를 이루며 살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공동세계에서 만나는 현존재의 존재방식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현존재는 더불어 있는 존재(Mit-sein)이며, 이러한 관심의 양상으로는 사랑, 존경등 등이 있다. 이러한 공동의 세계 속에서 만나는 타인, 그리고 그들과 관계 속에 빠져 사는 나는 본래의 자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자기, 평균적인 세상사람이 된다(das man). 이러한 세상사람들로서의 현존재는 본래의 자기가 가려져 있는 존재방식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세상사람으로서의 일상인의 모습을 퇴락 한 상태라고 부른다. 인간 현존재는 이러한 퇴락한 상태로부터 참된 실존으로서의 본래의 자기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이데거는 인간현존재가 자기자신과 관계하는 염려라는(Sorge)존재방식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부분한다. 실존성, 현사실성, 퇴락성이다. 실존성은 자신을 앞서나가서 자신의 현존재방식을 이해하며, 현사실성은 세계 내에 이미 존재함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며, 퇴락성은 세계 내부에서 만나는 존재자들 속에, 즉 공동의 세계(Mitwelt)에 빠져있는 것을 말한다. 현존재는 자기자신을 받아들이든가, 혹은 자신 앞에서 도망가든가 하는 자신의 가능성을 지니며, 이에 대한 선택의 결단을 해야 한다. 인간현존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 즉 불안 속에서 발견한다. 이 불안은 인간이 죽음으로 향한 존재, 즉 유한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오며, 이것은 숙명적이며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과연 죽음으로 향한 존재로 던져져 있는 운명을 지닌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 내 존재”로서 던져져 있는 (사실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을 향하여 스스로를 던지는 존재이다. 던져져 있음이 과거적 필연성이라고 한다면, 미래를 향하여 기획하고 계획함은 곧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서 자신을 기투(企投, Entwerfen)하는 존재이다. 불안을 통해 죽음으로 향한 자기 존재의 가능성을 선취해서 존재의 자기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말

하는 죽음을 향한 현존재의 유한성을 이해하고 본래적인 자기가 되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의 선택이며, 인간 실존의 가능성인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죽음을 향한 존재가 죽음 앞에서 결단을 내리는 불안에 대한 용기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죽음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유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양심의 소리에 따름으로서 가능하다. 양심이란 세상사람들이 퇴락한 일상성 속에서 본래의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부르짖음이다. 이 양심의 침묵의 소리에 따라 본래의 자기가 된다는 것은 세계 속에 던져져 있으면서 자신을 앞으로 던지는 실존으로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간의 궁극적 존재가능성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죽음을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질러(Vorlaufen) 죽음을 받아들이는 결의함으로서 이제 죽음에의 불안은 오히려 죽음에로의 자유가 된다. 즉 죽음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함으로써, 현존재는 본래적 자신에 대한 존재방식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하여 죽음에로의 선구를 결의함으로써 인간은 참다운 자기, 본래적 자기의 실존으로 되돌아오며, 존재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한전숙희, 1988; Zimmermann, 1977).

지금까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전개된 인간현존재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성에 대한 본질을 밝혀나가는 작업을 하였다.

하이데거의 후기작품은 더 이상 기술적 현상학적인 방식에 의해 인간 현존재의 진리에 대한 해명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직접적으로 존재의 진리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그의 후기철학에서 전개된 근원에 대한 시적 사고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존재의 열림이라는 사건, 진리에로의 나아감이라는 비은폐성이 결국 예술적 작업이나, 시적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술작품을 통해 열려지는 일종의 사건으로서의 진리는 하이데거에 있어서 비은폐성으로서의 진리이다. 회화이든, 시든 이러한 예술작품은 진리를 비은폐성 가운데 나타나게 한다. 존재자의 진리가 열리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반 고흐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그 작품을 통해 농부의 생활 세계가 열리며, 그 세계가 작품가운데 건립된다고 말한다. 예술작품은 주체의 생활세계와 그 주체의 역사적 공간을 정돈하면서 존재자를 개방된 공간으로 이끈다. 예술작품은 세계를 열면서 동시에 대지, 즉 소재와 질료의 세계로 스스로를 감춘다. 스스로 은폐하고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투쟁은 창조자인 시인, 사상가 등에 의해 행해진다. 이러한 드러남(비은폐성)과 은폐(감춤)은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원천이다. 따라서 예술작품은세계의 열림과 대지에로의 감춤이라는 투쟁을 통해 성립된다. 시작(詩作) 행위란 은폐로부터 비은폐성 가운데로 존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시작 행위는 존재의 열림이라는 시원적인 진리를 체험하게 한다(Heidegger, 1979).

또한 하이데거의 자신의 후기철학, “인문주의의 서간”에서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 존재의 부름(양심의 소리), 존재의 소리가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고 이에 응답하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곧 언어(시적 언어)이다. 언어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세계가 개방되며, 이 개방이 곧 존재의 밝힘이다. 존재는 자신을 밝히면서 언어에 온다. 존재는 항상 언어를 향한 도상에 있다. 존재의 진리에로 나아가는 탈존(Ek-sistenz)은 “존재의 밝힘 속에서 있음”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전달하려는 임무를 지닌다. 이것은 곧 건네 오는 말에 응답하면서 귀를 기울일 때 발생한다. 즉 시인의 말함 속에서 시인의 낱말은 존재자의 존재를 담안다. 시인의 언어는 존재의 집인 것이다. 이러한 시인은 존재의 진리를 돌보는(염려하는) “존재의 목동”, 파수꾼이다. 목동, 파수꾼 염려(Sorge)는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Heidegger, 1981).

2. 사르트르

1) 존재(즉자)와 의식

훗설의 영향하에 있던 사르트르에 있어서 존재는 지향적 대상(intentionaler Gegenstand)이다. 존재는 인간의 의식에 의해 지향된 대상인 것이다. 사르트르에 있어서 지향적 대상은 의식 내에 내재적인 대상이 아니라, 의식 밖에 있는 실재하는 대상이다. 인간의 의식을 넘어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을 사르트르는 즉자(en-soi)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은 항상 존재에 지향하는 성격을 지니며, 이러한 특징을 사르트르는 대자(pour-soi)라고 부른다. 여기서 즉자로서의 존재는 그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창조되지도 않고 존재이유도 없으며, 다른 존재와의 어떠한 관계도 없는 “그 자체로서 있는 존재”이다. 즉 아무것도 아니다. 無이다. 무에 대한 체험이 곧 존재의 체험이며, 그의 철학적 소설 “구토”에서 주인공 로카탱이 느끼는 바로 존재의 역겨움인 것이다(한전숙 외, 1988).

그러면 대자적 존재, 의식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에 관하여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은 내가 어떤 대상을 의식하고 있을 때의 대상에 대한 의식과, 내가 그 대상을 의식하고 있다는 자기에 대한 의식이 있다. 즉 하나는 밖으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향하고 있다. 의식은 단지 무엇(대상)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無를 개입시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대상과 자신을 無化시켜 나간다. 의식은 자신의 존재 내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의 의식을 갖는 존재이다.

사르트르는 데카르트를 쫓아 무화의 조건, 및 무를 자신으로부터 산출해 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존재자와의 관계의 필연적인 계열로부터 해체해 버릴 수 있는 가능 조건을 자유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대자로서 의식을 지닌 인간의 조건이 바로 자유이며, 이것은 사르트르의 실존의 개념과 관계한다(Zimmermann, 1977).

2) 자유와 실존 그리고 타자

대자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실존한다(existenz). 이것은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초월적인(transzendente) 존재방식을 말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밖으로 자기를 내던져 미래를 향하여 현재를 뛰어넘는 投企(project)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의 제 1원리인 것이다. 인간의 본질의 규정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실현해 가는 한에서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는 곧 자유이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단죄 받았다. 현상학적 분석의 결과는 인간이란 자신 안에서 현존하여 자신과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곧 그의 무이며, 따라서 그는 존재하는 대신에 무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만들어 나가도록 상황을 창조해야 한다. 자기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를 시간화한다는 것이며, 상황을 구성하는 계획(Entwurf)의 수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는 그때 그때의 상황 속에서 구해지는 스스로 투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이다. “자유란 오직 상황 속에 있고, 상황이란 오직 자유를 통해 있다.” 상황은 선택되어 투사된 창조된 상황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존재방식을 선택하고 투사하여 만들어 가는 인간의 실존은 각자의 존재방식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Zimmermann, 1977).

사르트르는 각자가 자기의 존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체성을 통해 상호 주관적인 보편성이 획득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보편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유의 선택과 상황의 투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사르트르에게서 실존으로서의 주체성은 오로지 타자를 자기의 존재조건으로 한다. 즉 주체성은 상호 주관적인 세계 속에 있음을 말한다. 그러면 인간의 의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타자와 관계를 갖는가? 인간의 의식은 신체의 방식에 의해 타자에게로 향하며, 신체에 의해서 구체적, 사실적으로 존재한다.

의식활동은 결국 신체를 매개로 하여 사물과의 교류를 하며 자기를 초월한다. 이렇게 신체성과 타자의 존재가 인간의의식의 사실성을 구성한다. 여기서 이러한 신체적 주관을 통해 타자와 결속하는 있는 인간 존재를 “세계 내 존재”라고 한다. 구체적이며 현실적 인간존재는 신체적 방식으로 타자와 관계하는 “세계 내 존재”인 것이다.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신체를 통해 자신을 초월하여 타자에게로 나아간다. 여기에서의 타자는 내가 나의 실존적 주체인 것처럼 주체로서의 타자이다. 만약 내가 타인의 존재가 아님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나는 다른 실존(타인)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나의 자유로운 자발성을 주장함으로써 타인이 있음을 일깨우고, 의식이 그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지시하고 있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존재방식을 상황 속에 투사하고 선택하는 주체의 실존적 방식은 오로지 타인과의 상호 주체적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나의 자유와 책임은 타인과의 구체적 결속가운데서 타인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Zimmermann, 1977).

3. 메를로-퐁티

1) 지각의 현상학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에 있어서 현상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현상학은 본질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즉 지각의 본질, 의식의 본질이 현상학의 추구의 대상이다. 이러한 현상학은 본질을 다시 인간의 체험의 세계, 즉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추구해야 한다(Meuleau-Ponty, 오병남 역, 1983). 기존의 현상학은 모든 사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선험철학에 속한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 경험이나, 태도를 일단 부정한다. 그러나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모든 선험적 반성 이전의 세계가 이미 우리 앞에 현존 해 있고, 그 세계의 소박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제를 갖는다.

여기서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지각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지각에 의한 인간의 원초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해명하자는 태도인 것이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결국 肉화된 의식을 체험하는 현상을 기술하는 학문이다. 전통철학에서는 (경험론, 합리론, 관념론, 실재론)에서는 육화된 의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경험론자는 지각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대상들에

대한 지각으로서 과학이론의 영향하에서 생각하였고, 합리론은 믿을 수 없는 오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였다(김형효, 1999). 특히 메를로-퐁티는 경험론자의 지각이론을 비판하면서 순수한 지각이란 허구적인 것이며, 모든 지각은 반드시 어떤 지평으로서의 場 속에 있는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장과의 관계를 떠난 독립된 물건을 지각한다는 것은 아무런 차이도 없는 동질의 색깔과 형태로 가득 찬 세계를 지각한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메를로-퐁티에게서 지각, 외부세계에 대한 느낌은 지각된 대상들의 지평으로서의 세계(바탕)와 지각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몸과의 관계에 의한 일종의 무늬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세계와 나의 몸과의 공유하는 지대(에매한 두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몸과 세계가 서로 “살아있는 생명의 교감”을 주고받을 수 있다 (김형효, 1999).

여기서 메를로-퐁티가 생각하는 몸은 객관적인 삼인칭의 세계로서 생리학자가 관찰하는 그런 사물로서의 유기체가 아니다. 그 몸은 구체적으로 “나의 몸”, 주체로서의 몸이다. 나의 몸은 곧 세계와의 에매한 상태에서 교통을 하고 있다. 나의 몸이 느끼는 감각은 “공동체”이며, 그러한 감각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유는 나의 몸이 주체이며, 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지향운동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메를로-퐁티의 사유와 의식은 바로 신체의 지향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색깔에 대한 느낌, 소리에 대한 지각도 의식의 지향성의 소산인 것이다.

이러한 몸에 대한 느낌, 지향운동에 의한 지각하는 자는 이미 그 몸 내부에 탄생이후에 느껴온 지각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같은 사건이나, 사물을 지각하는 사람마다 다른 형태의 의미작용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각이 매순간 새로운 경험으로 의미를 잉태하게 하고 동시에 그 경험은 다시 암시적인 의명의 발로로 숨어버리는 것과 같다. 마치 동굴에 있어서 내벽의 주름이 동굴의 탄생과 죽음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지각하고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친숙한 장소로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세계와의 살아있는 교감이다. 따라서 메를로-퐁티에 있어서 현상학은 결국 나의 신체와 세계와의 살아있는 교감으로서 원초적 지각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 체험을 기술하는 학문인 것이다(김형효, 1999).

2) 지평의 지각과 대상의 인식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느낀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친숙한 장소로서 우리에게 느낌을 드러나게 해주는 세계와 생명의

교감”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에 의한 느낌이라는 것은 과학 이전, 즉 반성 이전의 세계에 속한다. 그러면 과학과 원초적 知覺의 세계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과학은 지성 혹은 이성적 분석과 반성의 소산이다. 지각의 세계는 주어진 세계의 지평 위에서 하나의 형태로 다가오지, 분산된 개별적인 요소로서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는 일종의 가정적 종합이다. 그것은 일종의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익명적인 하나의 지평이다. 지각의 주변은 완성되지 않는 열린 공간으로서 개방되어있다. 이러한 지각의 종합은 자연적 경험 속에서 신체의 자기내부,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유기적 공동작용으로 스스로 모은 것이며, 동시에 지향성의 운동에 의하여 지각의 場인 지평 속에서 의미작용의 형태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신체의 지각의 지향성은 의미작용의 종합을 향해있다. 이러한 종합은 지각 적 종합이다. 지각의 종합이 암시적 사유인 반면에 지성과 오성에 의한 종합은 명시적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명시적 사유는 이러한 지각적 종합으로부터 이행된 것이다. 과학과 인식의 세계는 지각의 지평에 놓인 지각적 종합으로부터 하나의 대상을 분리시키고 반성하여 그것을 보편적인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각은 하나의 시작하는 과학이며, 그 기초에는 지각의 종합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즉 지각에 의한 세계의 원초적 체험은 나의 몸과 세계가 하나의 공유하는 의미작용을 맺고 있으며, 거기엔 이미 논리적으로 객관화되기 이전의 총체적인 의미가 탄생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김형효, 1999).

인간의 정상적인 신체에 의한 지각은 일종의 종합이, 통일된 전체가 있다. 온 몸으로 느끼는 체험, 지각, 느낌은 논리적 판단 이전에 이루어지는 종합이며, 몸이 지니는 감각들의 다양성의 통일에서 성립한다. 신체자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주위의 세계의 사물들과 그의 몸이 함께 엮은 의미작용의 체계, 즉 지각의 습관이란 체계를 짊어지고 있다.

메를로-퐁티는 수족이 절단한 환자가 신체가 건전할 때 몸에 뻗 신체 습관이 나타나는 허체 현상과 손가락을 절단한 피아니스트를 괴롭히는 손가락에 대한 망상을 이러한 예로서 들고 있다. 또한 이것은 나의 몸이 의식과 세계가 서로 교감하고 접촉되는 모든 구체적 형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몸에 의한 지각, 원천적으로 통일된 지향적인 지각은 예술작품과도 비교된다. 또한 한 인간의 얼굴인상은 곧 그 인간의 의식이 지향했던, 그리고 지금도 지향하고 행동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그린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몸의 반응, 신체적 반응은 단지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던 환경의 성격과 본질을 알려준다. 따라서 메를로-퐁티에게서 몸에 의

한 지각은 곧 육화된 현상, 육화된 의식이다.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 내 존재”의 양식, 생활세계의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게서의 몸은 주체로서의 몸이며, 동시에 타자의 몸 역시 주체로서의 몸이다(김형효, 1999).

몸에 의한 지각으로서 육화된 의식에 의한 지각된 사물들은 선 술어적인 존재양식을 지닌다. 메를로-퐁티는 특히 세잔느의 그림을 통해 선 술어적인(설명되기 이전의) 원초적인 지각의 종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잔느의 그림은 내 몸을 살아 있게 하는 세계에 대한 술어 이전의 논리, 즉 우리의 체내감각을 통일시키는 공간각 현상에 의한 세계와의 원초적인 만남을 보여준다. 세잔느는 이처럼 자연을 바라보면서 미리부터 있었던 그 세계를 온 몸이 느낀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몸의 느낌은 지각의 능동성과 수동성이 함께 작용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일종의 유희 방식이다(Merleau-Ponty, 오병남 역, 1983).

3) 타인의 만남과 상호주관성

익명의 타인들과 함께 사는 인간 세계에서 나는 인간관계의 상호 주관적 세계에 먼저 던져졌고, 이 세계 속에서 나의 주체성이 형성된다. 이러한 상호 주관적인 세계 속에 이미 얽혀 있는 인간의 존재를 메를로-퐁티는 “세계 내 존재”라고 일컫는다. 인간은 본래 개인의 자각 이전의 先 개성적이며, 습관적인 지각의 세계에서 서로 공존한다. 상호 주관적인 관계의 형성은 곧 몸을 통한 지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메를로-퐁티는 한 예를 든다. 15개월 된 아기는 내가 장난삼아 그의 손가락 한 개를 잡아 내 입 속에 넣어 깨무는 시늉을 하면, 입을 벌린다. 즉 그 아기는 내가 손가락을 무는 시늉을 하면 입을 벌려 나를 무는 동작을 취하는 것이다. 그 아기는 나의 의도를 단번에 몸을 통하여 간파하는 것처럼 보이며, 나의 의도가 그의 몸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의 동작은 이미 상호 주관적인 의미작용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보여주듯 나의 몸과 타인의 몸은 나의 의도들과 타인의 의도들이 각각 행동을 통하여 하나의 인간세계를 형성하는 체계와 같다. 나의 몸은 타인들의 의도들의 거울이고, 타인들의 몸도 나의 의도들의 반영이므로, 몸들의 만남은 같은 인간세계에서 거울이 순환적으로 서로 반사하듯이 그런 관계로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지각의 세계 속에서 허용되는 상호주관성은 인간의 주체의 토대를 이루며, 거기서 타인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에게서 신체의 상호 교호적 활동과 타인과의 상호 주관적으로 만나는 세계는 타인과의 의사

소통을 위한 기반인 것이다. 여기서의 몸은 자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대상으로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타인과의 몸을 매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세계는 일종의 문화적 세계의 기반이다.(Meuleu-Ponty, 오병남 역, 1983) 거기서 몸과 주체, 자아와 타자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상호 교호적인 몸을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양해림, 2000)

4) 인간의 의식과 자유

의식은 몸을 통한 지각 현상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지향운동, 즉 자기 자신이 아닌 타자어로 초월하는 운동을 갖는다. 메를로-퐁티에게서 지각의 경험은 과학적이며 반성적 지식의 원천이다. 과학은 지각의 주체인 몸이 세계와의 접촉 속에서 몸의 운동을 통해 느껴진 경험의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내 몸은 모든 과학과 예술창조의 바탕이며, 몸의 매개를 거치지 않은 생각은 인간에게 성립될 수 없다. 몸의 언어는 일차적이며 근원적이며, 반성된 언어는 이차적이다. 메를로퐁티는 몸의 말, 몸의 표현을 “암묵적 코기토”라고 한다. 암묵적 코기토(cogito, 나는 사고한다)는 반성이전의 주체성이다. 이것은 의식화된 명시적 언어를 통한 사고가 아니라, 익명(匿名)적인 주체성이다. 이러한 익명적인 주체성이 모든 지식의 기반이며, 거기서 그가 살고 있는 생활 세계의 자연성과 사회성, 역사성을 구분되지 않는다. 반성 이전의 의식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 축적된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신체를 통한 사실성으로서의 나의 실존은 일종의 익명적인 주체성이며, 반성이전의 단계에서 시간적으로 언어적으로 감각적으로 생활세계와 교감이 얽혀있는 의식이며, 모든 사실들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사실이다. 이것은 일종의 지각의 침전된 역사와 같다. 따라서 세계는 불투명하며 동시에 무한하고 그러면서도 유한한 나의 육화된 몸의 의식에 침투하여 있다. 의식화된 코기토, 즉 자아의식에 의해 세계의 의미에 대한 완전한 해명은 불가능하다(김형효, 1999). 결국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은 의식과 세계가 주객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수준에서 세계와 주체와의 교감이 지니온 침묵의 역사가 형성해온 “세상사람들”의 생활의 두께를 나의 체험의 의미로 해명해야 한다.

메를로-퐁티에게서 그러면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유의 개념은 인간 몸의 기능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본 것에서 분명해진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능동성은 세계에로의 참여를 의미하지만, 그러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곧 세계와의 교감을 할 수 있는 몸의 능력

을 뜻한다. 사르트르의 인간 자유의 절대론을 주장한 것과 달리, 메를로-퐁티에게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 순간의 행위와 연속을 지으면서 미래로 향하는 행위의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자는 늘 새로운 자유를 창조하지만, 그 새로운 자유는 그 전 순간의 행위를 발판으로 이행한다. 메를로-퐁티의 위치는 결정론과 절대적 자유론의 중간에 있다. 자유는 세계라는 전통과 기존의 장과 그 장이 안고 있는 성격과 나의 신체의 지각에 의한 “내가 할 수 있다”능력이 주고받는 대화 같다. 즉 자유는 생활세계라는 장과의 원심운동이요 동시에 구심운동이다. 원심운동은 자유가 새로움을 향해서 세계가 형성한 기존의 틀을 벗어 나는 운동이며, 동시에 구심운동은 내가 몸담은 신체적 상황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김형효, 1999).

V. 결 론

지금까지 파시와 왓슨의 간호이론과 주요개념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를 하였고, 이들 이론에서 인간 삶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와 개념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하이데거, 사르트르 그리고 메를로-퐁티의 실존적 현상학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따라서 본고는 마지막으로 이들 실존 철학자들의 주요 이론과 개념들이 어떻게 간호이론 속에 수용되었는지 평가하여 보기로 한다.

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파시의 인간-삶-건강이라는 간호이론의 9개의 기본적 가정과 이에 따른 주요개념은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퐁티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파시는 실존적 현상학자의 철학적 원리와 기본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용시키기도는 간호이론과 관계하는 인간 삶의 건강에 대한 의미와 연관하여 이들의 이론과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녀의 저서에서는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퐁티의 사상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로 그녀의 이론 속에서 적용되어 변형의 과정을 거쳤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고는 실존적 현상학이 파시의 이론에서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어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작업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우선 파시에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간 되어감(Human-becoming)의 과정으로서의 건강의 의미는 하이데거의 인간 현존재의 실존적인 존재양식과 관련한다. 즉 인간의 실존적인 존재양식은 곧 상황에 얽매인 인간의 유한한 한계상황에 대한 초월을 통한 미래의 가능성을 향한 자유로운 자기 계획의 행

위이며, 이것이 곧 건강의 과정인 것이다. 즉 인간 되어감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건강의 의미는 파시에게 하이데거의 사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 현존재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초월과정을 통한 실존적 자기이해의 과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실존적 자기 이해와 미래로 향한 자기 계획 과정으로서의 건강의 과정은 하이데거의 용어로서 존재의 감춤과 드러남의 역동적인 삶의 이해 과정이다. 특히 주어진 상황을 초월하는 힘은 역동적으로 변하는 삶의 과정에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자기 시원적(始原的)인 운동이다. 이것은 자아 상실이라는 일상적 삶의 퇴락성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존재에 대한 고유한 실존적 방식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며, 존재의 생성의 힘을 부여하는 창조와 변형의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파시에게서의 건강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삶에서의 건강의 과정은 바로 하이데거의 실존적 현상학에서 표현되고 있는 “세계 내 존재”, 즉 환경과 타자의 세계에 이미 깊숙이 염려(Sorge)하는 존재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해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파시에게서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의 영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사르트르에게 인간 삶의 실존방식은 상황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한 미래를 향한 자유의 실현이며, 이것은 곧 스스로 다양한 차원에서 상황을 구성하여 이를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행위이다. 인간은 오로지 스스로 상상(imaging)에 의해 구성된 상황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을 지니며, 그러한 자유로운 선택은 타인의 실존을 조건으로 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건강이다. 즉 인간은 오로지 타자와의 상호 주관적 관계 속에서 상황을 구성하고, 또한 초월하는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을 지닌다. 거기서 건강의 의미는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스스로 창조하는 주체적 삶의 참여과정에서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파시에게서 메를로-퐁티의 영향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서 보여준 신체의 지각 활동을 통해 타자와 공존하는 원초적인 체험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파시에게서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감각” 즉, 신체적 접촉, 제스처, 표정, 말하기, 응시, 태도에 대한 통합적인 지각으로부터 삶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인식이 가능하다는 설명에서 드러난다. 상황에 대한 전반성적 이해라는 차원으로부터 다양한 삶의 인식의 유형이 생겨나며, 이로부터 인간은 다양한 차원에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파시가 강조하는 상황에 대한 전반성적인 이해의 차원은 메를로-퐁티가 말한 신체를 통한 총체적인 지각의 세계를 의미한다. 오로지 이러한 전반성적인 암묵적 지식의 차원으로부터 다양한 명시적 차원에

로의 지식이 가능한 것이다. 파시에게서 근원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삶의 세계는 타자와 공존하는 원초적 지각의 세계이다. 이것은 총체적이며 종합적인 암묵적인 지식의 세계이다. 이러한 신체를 매개로 암묵적 차원에 놓인 지각의 세계를 상호 주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은 실제로 삶의 과정에 참여하는 상상하기의 과정이며, 의미를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상호 주관적인 지각의 경험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상하기의 과정이며, 이에 의한 표현방식은 문화적 전통과 관계하여 명시적인 논리적 표현방식 뿐 아니라,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방식들을 지닌다. 이러한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방식들을 통해 인간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삶의 의미가 구조화되는 것이다. 삶의 체험을 상상하여 구조화하는 과정은 상황을 창조하는 과정이며, 인간 삶 건강이란 유형을 스스로 재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상상하기, 가치화, 언어화에 의해 삶의 의미를 다양한 차원에서 구조화하는 과정은 파시에게서 타인과 공존하는 총체적인 지각의 세계에 놓인 암묵적 지식을 구체화시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인 것이다.

왓슨의 돌봄의 이론에서 인간과 삶에 대한 형이상학 전제는 매우 다양한 사상의 흐름을 한꺼번에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실존적 현상학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 탐구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왓슨 스스로도 말하듯이 그녀의 간호이론은 동양의 인도철학의 정신주의, 선적 수행이라는 명상을 통한 조화롭고 총체적인 자아의 실현과정과 또한 칼 융의 심층심리학의 영향하에 있는 자아의 개념, 그리고 다양한 실존주의의 사상가들 즉 키엘케골, 마르셀,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그뿐만이 아니라, 헤겔의 정신철학까지 수용하고 있다. 특히 그녀에게 있어서 건강의 개념과 관계하는 영적인 차원에까지 이르는 자기 의식 전개과정으로서의 자아의 실현과정은 실존적 현상학의 영향 뿐 아니라, 동서양의 정신주의 철학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는 부분이다. 왓슨에게서 인간 삶의 과정에서 건강의 의미는 오히려 동양과 서양의 정신주의와 융의 심층심리학의 영향을 혼합적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존적 현상학에서의 하이데거와 메를로-퐁티의 영향은 왓슨의 돌봄의 이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왓슨은 두 철학자의 상이한 입장에 대한 철학적 분석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철학자의 상이한 원리와 주요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텍스트 자체 내에서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인은 어떠한 맥락에서 두 철학자의 입장이 왓슨의 돌봄의 이론에 흡수되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왓슨에게서의 하이데거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볼 수 있다.

〈표 1〉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퐁티
과시	인간현존재: 세계내존재 실존적 주체와 초월 자유와 결단,	실존적 주체성, 자유 타자와의 상호주관성 상황의 구성, 선택과 책임	암묵적 지식 지각을 매개로 한 타자와의 상호주관성(세계내존재)
왓슨	세계내존재 타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 현상적 영역의 시간성 (역사성, 동시성) 진리의 밝힘(altheia)과 초월적 현상학(시적 언어)		총체적인 지각의 체험 체험의 세계와 세계내존재 지각을 통한 상호 주관적 관계와 돌봄에 있어서 상호 교호적 관계 근원적 삶의 체험과 표현(시적 표현) 초월적 현상학

한 개인(person)은 “세계 내 존재”로서 타인과 환경에 대해 항상 열려, 배려하는 관계 속에 거주하기 때문에 돌봄의 행위와 돌봄에 대한 욕구는 인간현존재에 대한 기본적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 내 존재”로서의 개인의 총체적인 경험은 바로 주관적 실재성을 지닌 현상학적 장(field)을 형성하며, 이것은 인간의 사고와 정서(느낌), 소망, 욕구 목표 등 인간의 깨어있는 의식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숨겨있는 모든 요소(특히 불안)까지 총체적인 삶의 체험의 영역이다. 따라서 간호사와 환자와의 상호 교호적 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돌봄은 서로의 개별적인 현상적 영역을 접촉하고 공유하면서 발생된다. 하이데거에서 있어서 현상학적 분석의 의미는 인간 현존재의 해명에 있으며, 은폐와 비 은폐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일종의 순간적인 사건처럼 진리가 드러난다. 이러한 은폐에서 비 은폐로 나아가는 존재의 발생의 과정은 기술적 서술적 언어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언어(존재의 집)로서 표현된다. 왓슨에게서는 초인격적인 돌봄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은 초월적 현상학적 방법이다. 왜냐하면 바로 돌봄의 기회는 환자와 간호사의 주관적인 체험의 현상학적 장에서 상호 교호적인 작용을 통해 순간적이며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예술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돌봄이라는 예술의 과정은 서술적 기술적 언어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언어로서 표현된다. 즉 왓슨의 초월적 현상학에서 간호의 실천과 연구의 대상은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 현존재이다. 간호의 이상으로서의 초개인적인 돌봄은 바로 감정, 지각을 포함한 인간 현존재의 심층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상호 교호적으로 접촉하는 예술의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표현방식은 탐구방법은 바로 시적 표현에 의해 가능하다. 하이데거의 초월적 현상학은 바로 하이데거의 인간 현존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상호 교호적인 돌봄의 이상

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인 것이다.

또한 왓슨의 돌봄 이론에서 메를로-퐁티의 영향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메를로-퐁티의 실존적 현상학은 특히 왓슨의 초인격적 돌봄의 과정은 바로 “예술”이라든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메를로-퐁티에서 실존적 현상학은 주관(나의)의 신체를 매개로 체험된 타자와 환경에 대한 원초적인 지각의 세계로 귀환하고자하는 탐구방식이다. 왓슨은 간호사의 감성적 능력, 즉 움직임, 제스처, 표정, 행위 감촉 소리 언어 색, 형태 등을 통한 지각의 세계에서 타자와의 정서를 공유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곧 환자와의 상호 주관적 관계형성의 기초가 된다. 간호에서의 예술행위는 간호와 대상자의 상호 주관적 관계가 신체를 통해 지각되는 인간 삶의 세계(생활세계)에서 육화된 의식을 느끼고 표현하는 정서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메를로-퐁티에 의하면 타인과 환경과 얽혀 있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신체적 주관은 논리적인 분석이전의 암묵적 지식의 영역(선반성적인 지각의 체험의 영역)을 형성한다. 따라서 왓슨에게서 돌봄의 영역으로서의 현상적 장은 간호사와 환자와의 신체를 매개로 상호 교호적으로 교감하는 그러한 지각의 체험의 세계이다. 이것은 소리, 색, 형태를 통해서 표현되며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돌봄이 발생하는 현상적 영역은 메를로-퐁티의 원초적인 통합적인 지각의 장이며, 이에 대한 탐구방법은 바로 서로 교감하는 근원적인 삶의 세계의 이해를 위한 심층적 현상학적 탐구를 요구하는 것이다<표 1>.

참고문헌

김형효(1999), 메를로 퐁티와 에메성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이은주, 박영숙(1993), 간호학 방법론에 대한 성찰 간호학회지, 23, 453-466. 1993

메를로 폰티, (오병남 옮김, 1983), 현상학과 예술, 서광사 pp.29-31.

허버트 스피겔베르그, (최경호 옮김, 1992), 현상학적 운동, 이론과실천사

최남희(1991), 간호학의 방법론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51-169

양해림(2000), 메를로 폰티에게 있어서 몸의 문화현상학, 현상학회 신춘세미나, 12

한전숙, 차인석 (1988), 현대의 철학 I, 서울대출판부, pp.31-85

하이데거, 마틴(오병남, 민형원역, 1979), 예술의 철학적 해명, 경문사, pp.171-189

집머만, 프란츠(이기상 역, 1977), 실존철학, 서광사, 124-215

Alexanderdersson, C.(1981), Ameddeo Giogi's Empirical Phenomenology, Sweden. 3, 1-35

Biemel, Walter(1993), Heidegger, Rowohlt, Hamburg, 35

Bunting, Sheila(1993), Rosemarie Parse, Theory of Human Becoming, Sage Pub. 5

De Chardin, T.(1967), On Love. New York: Harper & Row, Pub. 1967, 7-8

Dilthey, Wilhelm(1961), Pattern and Meaning in History, New York:Harper&Row, 110

Giorgi, A.(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A Phenomenologically Based Approach. New York: Haper & Row, Pub.

Heidegger, M.(1962), Sein und Zeit, M.Niemeyer Verlag. Tübingen, 1984

Levin, D. (1983), The poetic function in phenomenological discourse, Albany, N.Y. 216-234

Marton, F.(1981), Phenomenography-Describing conceptions of the world around us. Instructional Science, 10, 177-200

Meuleau-Ponty, M.(1974), Phenomenology of perception, New York, 346-365

Heidegger,M.(1982), Über den Humanismus,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5

Parse, Rosemarie Rizzo(1981), Man-Living -Health: A theory of Nursing, NY: A Wiley Medical Pulication.

Parse, R.R.(1987), Nursing Science: Major paradigms, theories and critique. Philadelphia:W.B.Saunders. 162

Satre, Jean-Paul(1966), Being and Nothingness, New York: Waschington, 619

Watson,Jean(1988), 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 New York.

Zimmermann, Franz(1977), Einführung in die Existenz-philosophie, Darmstadt

- Abstract

key concepts: Parse's and Watson's theory of nursing, existential phenomenology

The existential phenomenology in Parse's and Watson's theory of nursing

*Kong, Byung 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 understanding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Parse's and Watson's theory of nursing. Pars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ology, Principle and main concepts are based on existential phenomenology. And Watson's theory of human care indicate that the optimal method for studying and inquiring theory of trans-personal caring is phenomenological-existential methodology.

The chief theme of this study ist to illuminate how ideas and concepts of existential phenomenology are applied to Parse's and watson's theory of nursing. Conten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1. Principles, concepts, theoretical structure of Man-Living-Health theory were investigated in Parse's theory of nursing as Human science.
2. Essential assumptions, chief concepts and methodology of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were investigated in Watson's theory of trans- personal caring.
3.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Human being" und poetic thinking of truth were described in the context of the Heidegger's fundamental ontology und

* Lecturer, Department of Philosophy, Nursing, Korea University

existential phenomenology.

4. Meaning of existential subjectivity, freedom and choice was interpreted according to Sartre's existential philosophy
5.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perception and function of body were investigated in the context of Merleau-ponty's existential phenomenology.
6. Ultimately this study provided how ideas and concepts of existential phenomenology was applied to Parse's and Watson's nursing theory and methodology.